



대한양계협회소식

74년도 종계도입 물량확정

지난 5월 30일 대한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종계수급 조절위원회(위원장 ; 오봉국박사)에서는 73년도 종계수급조절 결과를 심의 분석하고 74년도 종계수입추진 수수를 육용계에 한하여 G.P.S는 모계 우기준 5,000수 PS는 우기준 6,400

수로 확정했으며 산란계 증계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체 수입을 없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수출용에 대하여는 제품(생산량)을 전량수출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키로 했다.

제 6회 육용계 능력검정실시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닭 경제능력검정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제 6회 부모일러 2,000수를 입추 육우를 시작했다. 8주간 검정을 할 이번 부모일러 검정계는 총 9구의 출품을 의뢰받아(1구당 360개) 1반부 50수씩, 4반부으로 케이지 및 평사에서 사육하게 된다. 이 사업은 닭의 자질개량과 양계가에 병아리 구입의 지침을 주기위해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한 대한양계협회검정소에서 8주간 실시하게 된다.

다. 현재 닭경제능력검정소에는 8회산란계와 9회산란계의 검정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출품된 육용계군은 아래와 같다.

천호부화장	하이브로	2군
한일농원	필치88A	1군
한국카아걸	세이버스타브로	"
퓨리나코리아	아바에커-70	"
인산농원	코브칼러섹스	"
신기농장	하바드663	2군
한협육종	한협603	1군

고등감별사 허만재 출국

그간 대구지방에서 직업감별을 하는 허만재 감별사가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5월 31일 오후 2시 C.P.A 편으로 스페인으로 떠났다. 한편 대한양계협회에서는 해동부화장 감별사 박종환씨와 삼화농원 감별사 배영환을 서독으로 파견키 위해 현재 출국수속중이며 천호부화장 박흥식 정국은, 부산의 김석연을 스위스로 서울부화장의 전남철 한

미감별학원 김희준을 스페인으로 각각 6월중 파견할 예정으로 출국수속중이며 동신부화장 한국가금농장등에서 감별하던 이동욱 어 감별사도 6월말에 출국하게 되었다.

전북지부 강습회 개최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지부장 : 김석삼)는 채란분과 위원회와 부모일러 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 기히 조직된 부화분과 위원회와 더불어 전북지방의 전 양계인을 회원으로 기구를강화하고 양계세미나를 전북도

축경과의 협조로 개최하였는데 강사는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오세경교수의 금후의 양계업에 대해, 총정백 전무의 최근 일본양계의 동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조지 E 우드에 감사패 수여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6월 28일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으로서 재직하다 전임하는 조지 E. 우드(George E. Wood)에게 재임중 한국의 양계산업발전과 당협회의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FAO/UNDP 조사단 본 협회 방문

FAO(국제식량농업기구)유엔 축산개발센터 설치를 위한 조사단이 내한 체류중 본 협회를 방문, 한국의 양계산업과 대한양계협회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동 조사단은 낙농 및 육우, 사료생산, 조지, 수의예방약, 생산, 양돈, 양계, 축산경영, 등 축산개발센터 설치를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대단위 畜産投資分 종합소득세 감면

국무회의는 지난 6월14일 조세감면 시행령을 고쳐 종합 소득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축산업 투자와 규모의 범위를 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대단위 목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10년내지 11년동안에 ① 한우, 육우, 유우는 1천두에 축사 4,950m²(유우는 8,250m²)까지 500ha, 사료포 250ha, ② 산양, 면양은 1만두, 축사 8,250m², 초지 500ha, 사료포 250ha의 시설을 갖추는 목장사업 투자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같은 시설규모는 원칙적으로 2년동안에 5분의 1씩 분할투자하여 10년 동안에 끝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엔 투자기간을 1년연장, 최장 1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면세 희망자는 투자 계획서를 농수산부 장관에 제출 승인을 얻은 다음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과표에서 축산업 투자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지난 5월말로 끝나는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다시받아 면세해 주기로 했다.

면세 축산업 규모

	가축(두)	축사(m ²)	초지(ha)	사료포(ha)
한우	1,000	4,950	500	250
육우	1,000	4,950	"	"
유우	1,000	8,250	"	"
산양	10,000	8,250	"	"
면양	10,000	8,250	"	"



豚肉수출 증가 될 듯

농수산부는 일본이 지난해 돼지고기를 과잉수입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수입을 억제 차등관세제를 실시해왔으나 지난 4월말 현재 돈육 재고량이 2만톤에 불과해 그동안 거의 소비됐고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하절이 돈육최성수이기 때문에 곧 수입을 개방 차등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 6월하순께부터는 우리나라 돈육의 대일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그동안 돈육수출부진으로 인해 국내생돈값이 폭락됨에 따라 돈육비축 사업을 실시 지난 14일 4억 5천만원을 농협 및 수출업체에 융자 지원했다.

육우사업 합작대상 물색

—미국 오버시스사서—
미국의 오버시스사(Overseas

Development)는 우리나라에서 육우사육사업을 함께할 한국측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3일 한미경제협의회(회장 박충훈)에 의하면 이회사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전자제품회사에 투자하여 4~5백만달러의 영업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회사의 거쉬만사장이 지난 5월 14일 한미경제협의회를 방문 양국간의 육우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이결과 출자비율 50대50으로 된 합작회사의 운영권은 한국측 합작선이 맡고 경영 및 기술지도는 오버시스의 아시아담당 지사장이 맡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 회사는 우선 금년 10월까지 1백마리의 육우를 도입하여 곡물사료가 아닌 볏짚을 섞여 발효시킨 특수사료를 사용해서 방목하지않고 사육장에서 사육할 계획이다. 현재 이 회사는 S식품과 B상사와 합작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사료난 80년대도 계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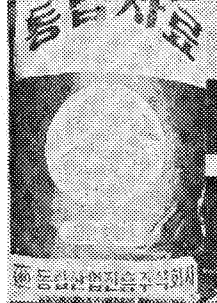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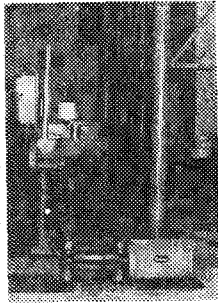
미국 쿠크 사료회사 부사장이 밝혀

세계적으로 심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료는 오는 80년에 가서도 공급부족이 예상 사료난은 장기화 할 전망이다. 미국 전문가가 내다봤다. 이같은 예상은 미국의 골지의 사료회사인 쿠크회사의 후페츠 부사장이 최근 열린 미국 농기업자 연차대회에서 가진 80년대의 세계식품생산과 수요및 가격전망이란 주제 연설에서 밝혀졌다. 후페츠 부사장은 그의 연설에서 세계 사료곡물생산은 오는 80년 7억톤에 달할 것이나 수요는 7억 2천 6백만톤으로 2억 6백만톤의 사료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세계시장과 정치무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業界情報

동립 배합사료 공장 가동

— 日産 100톤 규모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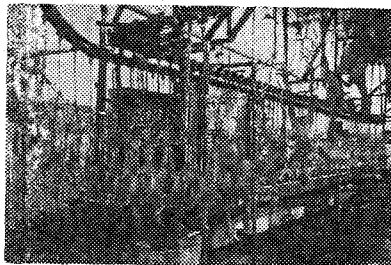
동립배합사료(대표: 김재식) 공장이 지난 6월 20일 12시를 기해 첫 가동을 시작했다. 연간 30,000톤의 각종배합사료를 생산할 동립배합사료 공장은 국내 최고의 최신 설비를 갖추고 양축가의 입장에서 가축의 기호에 맞는 사료를 생산하리라 한다. 이날 첫 가동식에는 농수산부를 비롯 대한양계협회, 한국사료협회 관련업체들이 화환을 보내왔으며 농수산부 김영진 축산국장, 사료협회 조홍래 기획부장등이 가

동을 지켜봤다. 이날 첫생산에는 낙농사료 2톤을 치너생산했는데 일산 100톤씩, 월 2,500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생산품목은 양계사료, 양돈사료, 를 비롯 모든 배합사료를 양축가의 입장에서 생산하게 될것이라 한다. 동립배합사료는 원료를 구입해서 품질을 엄격히 검수하여 원료를 정선, 분석, 제품을 출하할 예정인데 출하전에는 자체실험농장에서 사양시험을 해서 출하할 것이며 사양관리 지도도 아울러 하게 되

리라 한다. 한편 동립배합사료의 판매 방법은 대규모 양축가를 회원으로 직접공급하는 방법과 소규모 양축가에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며 기술지도를 위해 사양관리 및 경영지도 세미나를 수시 개최하여 양축가에게 도움을 주리라한다. 또 자체사료자원 개발을 위해 키스트와 공동으로 고구마를 당화시켜 특수처리하여 이유자돈사료로 이용하는 실험을 진행중에 있고 자체부지 2만평에 해바다기를 심어 사료원료를 공급 하며, 동립산업 자체 공장에서 나오는 주정부산물을 최대로 이용 사료화 하게되어 국내 배합사료회사로서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영기(서울대졸)씨와 이상윤(건대축졸)씨를 특채 업무를 보장하므로써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 갔다.

대한사료 부로일러 공장 준공

— 통닭용과 각종 부분육 생산 —



대한사료는 작년 5월말 기 공한바 있는 부로일러 공장의 건설공사를 완전히 끝내서 신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7일 준공된 대한 부로일러 공장은 최신의 기계설비로

전공정을 자동화하여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 국내 시장및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에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며 이와 동시에 양계업계에 활력 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대한 부로일러 공장은 통닭용 뿐만 아니라 각종 부분육을 생산,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한 사료는 현재 조선호텔을 비롯한 국내

월간 대한싸이클 발간



대한 신약주식회사 (대표: 김홍기)는 양축가와 좀 더 밀접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방안으로 약품전문기술지인 월간 대한싸이클 창간호를 발간했다. 지난 6월 5일에 첫호를 내놓은 "대한싸이클"에는 독시들의 예방과 치료대책이 양축가가 알기

계사의 온 습도 시험결과

채란계의 난중 산란율에 습도의 악영향은 없다

—일본 오가야마 양계시험장 발표—



“채란계의 사료섭취량과 산란율등은 온도 보다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종전의 설은 오가야마 현 양계시험장의 시험으로 “습도가 악 영향을 미친다”는 통설을 뒤집어 엮는 결과를 얻었다. 동 시험장에서는 이 시험결과에 의하여 양계농가에 계사의 온도를 낮게 하는 방식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지도 하고 있다. 이 시험은 여름동안의 기온, 습도가 채란계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동 시험장의 환경제어 시험장에서 실시한 것이다. 온도를 섭씨 20°C 25°C 30°C 35°C 의 구간의 4계사에 산란계(백색레구혼)각30 수식을 넣고 습도를 3주간마다 40% 60% 80%로 변경시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료섭취량과 산란율 1개당의 난중은 꼭 같이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온도의 증가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습도의 영향은 거의 받지않고 기온은 35°를 넘었을 경우 처음으로 닭의체중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정도였다.

지금까지 채란계의 능율저하의 원인은 장소, 배지등 대형가축의 환경시험 결과에서 추측하여 “습도”를 중시하는 실이 컸으나 “닭”의 경우는 이 통설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여졌다.

구체적인 시험성적에 의하면 사료섭취량(1수 1일당)은 기온 20도(습도40%)에서 111.6g이 되고 이것이 35도(습도 40%)가 되면 73.6g로 급격히 저하하여 온도의 영향이 강함을 보이고 있으나 습도가 80%인 것 이라도 그 수치는 거의 같다.

1개 난중도 습도의 악영향은 있으며 습도가 40% 일때 보다 80%일때가 도리어 큰 알을 낳고 있다. 반면 온도가 20°부터 35°로 상승하면 중란은 5-10g 감소하고 있다. 또 산란율(태수수)도 습도와는 거의 무관계인데 기온 20°의 조건하에서는 습도의 고저에 관계없이 81~85%의 고율을 마크하고 있으나 35°가 되면 64~71%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로 현 양계 시험장에서는 양계에는 온도 환경의 관리가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지도의 중점을 온도 대책에 전력하고 있는 양계농가에서는 ①개방계사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붕의 높이 계사 안쪽을 넓게하여 사내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고 ② 그늘이 지는 나무를 심어 햇빛이 직접 계사에드는 것을 피해야한다.

백신접종한 닭에서 마력병 발생...?

최근 마력백신을 접종한 닭에서 마력병이 발생한다고 하여 양계가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미 “Poultry International” 2월호에 소개된바와 같이 백신의 품질 및 보관 시술상에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마력병이 20~40%나 발생하느냐 하는 최근의 문제점은 외국을 비롯 국내에서도 토의가 되고 있다. 닭

병으로 문제시 되는 마력은 마력백신이 수입되므로써 마력병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켰으며 또 실제로 많은 감소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월간 양계 취재부에서 지난달 6월 11일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역연구담담관 박근식 과장의 대답을 통해 본 월간양계에 게재하였는데 「박근식과장」은 최

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마력병이 20~40%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철저한 환경관리 백신유통 보관상의 취급철저, 경험있는 수의사에 의한 접종등에 철저를 기하면 마력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리라 믿으며 월간양계에 서도 토의되고 있는 초점을 보다하게 될 것이다.



대두박 일반 양축가에 직접 분배

— 동방 유량 <주> 에서 —

영등포 양평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박류의 최대공급처인 동방유량에서는 종래 농수산부의 배정업체에 한하여 공급하던 대두박을 농수산부의 허가

를 얻어 일반양축가에 직접공급 판매하게 됐다. 동방유량의 대두박 직접배정은 사료원료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이때 질 좋은 대두박을 양축가가 이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밀기울 사정 완화될 듯...

밀기울로 인한 사료난이 차츰 풀릴 것 같다. 6월 24일 제분협회에 의하면 종래의 밀가루값 인상에 따라 월간 제분량이 급격히 줄어 들에 따라 밀기울의 공장사정도 악화되었는데 혼합곡의 인상에 따라 밀가루 수요가 5월에 8만~9만톤 6월에 10만~11만톤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서 요즘 겪고 있는 강부사정이 좋아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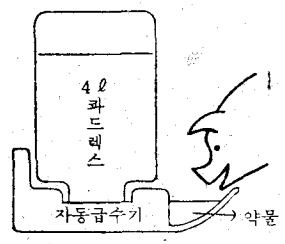
한국사료 첨가제 주최 야유회 성료

한국사료첨가제 (대표: 최죽송)가 주최하는 업체친선 배구대회가 지난 6월 9일 경기도 마석에 위치한 수동유원지에서 열렸다. 업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야유회는 한국사료 첨가제가 1년에 1회 개최하

는 연례행사로 이번에는 흥성사료, 한일사료, 중앙사료, 한국사료첨가제 등이 참석하였는데 흥성사료가 우승, 한일사료가 준우승을 차지한다. 이날 야유회의 사회는 한국사료첨가제 총무과장 박광신씨가 맡아 수고했다.

자동급수기 (Dispenser) 개발

한국사료첨가제는 자돈용 자동급수기를 개발판매하고 있다. 자동급수기의 특징은 약품투여시, 급수시, 대용유밀 인공유 등의 급여시의 이용 범위가 넓어 자돈용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한다.



한국양압협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농수산부는 지난 1965년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목적이 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재원을 확립하지 못한 한국양압협회 (대표: 정재원)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국양압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를 통합지시를 받은바 있는데 이에 불응한바 있다.

● 이달의 인사동정 ●

조성용씨: 대성미생물 사장 취임

김영기(서울대 졸)씨와 이상

● 이전 및 전화 증설 ●

※ 중앙약품 영업부통합

영등포구 등촌동 443으로 본사 영업부를 통합 전화 637794

※ 삼일부화장

종래 교환전화에서 일반전화

55-9037로 분리

74년도 종계수입 추천 신청접수

당협회에서는 74년도 육용종계(P.S 및 G.P.S)수입 추천신청을 74년 7월 15일까지 접수하오니 기일엄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일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계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1974. 6. 15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